

돼지콜레라 박멸사업단 구성

-경기남부양돈방역협의회 구성후 첫모임 가저
-1999년까지 콜레라백신 100% 접종하기로

-홍보부-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단이 구성됐다. 돼지 총사육규모 60만두로 전국 총사육두수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돈육 수출농가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경기 이천, 용인, 안성, 여주지역 공동방역사업단 대표들과 양돈인, 학계, 지자체 방역관련 담당자 등 20여명은 지난 11월 4일 경기남부지역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대일 돈육수출의 활로를 위하여 1999년 6월까지 100% 콜레라 백신, 100% 접종 2회 확인시 99년 10월부터 콜레라 백신 공급을 중지하고, 12월부터 백신판매를 중지한 후 2000년 12월까지 돼지콜레라를 완전 박멸하는 것을 목표로 양돈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내년까지 돼지콜레라를 완전히 박멸하지 못하면 대일 돈육수출이 어렵게 되어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며, 콜레라 질병에 의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돼지콜레라에 대한 백신을 1백% 접종하고 2000년부터는 살처분 단계에 들

어가 돼지콜레라를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돼지 수송기사에 대한 특별교육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돼지 사육농가가 콜레라 접종증명서 및 돼지이동증명서 작성후 돼지 수송기사에 전달토록 하면 돼지 수송기사는 콜레라 접종증명서 및 이동증명서를 필히 소지토록 할 것과,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양돈농가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현재의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콜레라 미접종농가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콜레라 박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내 양돈산업의 현황과 콜레라의 발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공익요원을 동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며 전국단위 방역사업과 아울러 민간주도 지역단위의 공동방역사업에 정부차원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주도 방역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도드람 양돈축협의 경우 구제역 방제기금중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방법과, 4개시군 공동방역사업단 기금을 모금하고, 경기도 지방비에서 일부 조달하는 방법과, 4개시군 방역 예산중 일부 협조하는 방안, 백신공급 두당 얼마씩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養豚**